

湖南精油 麗川정유공장을

둘러보고



— 洪性裕 —

이 활력있는 항구도시에 보다 숨가쁜 근대화의 물결을 심어 준 것은 주지하다시피 麗川工業基地다.

麗川郡 삼일읍 적량리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의 이 공업단지는 동양 최대의 중화학기지라 하는데, 이를 실감케 하는 대규모 공장이 끝없이 이어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조국 근대화의 힘찬 맥박소리를 듣는 것만 같다.

湖南精油, 南海化學, 湖南石油, 湖南에틸렌 등 굵직굵직한 공장이 수 없이 들어서 있으며, 아직도 건설중인 공장과 입주예정공장이 허다하여, 全南공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뿐더러, 전국 제일의 공단으로 조성되었고, 더욱 팽창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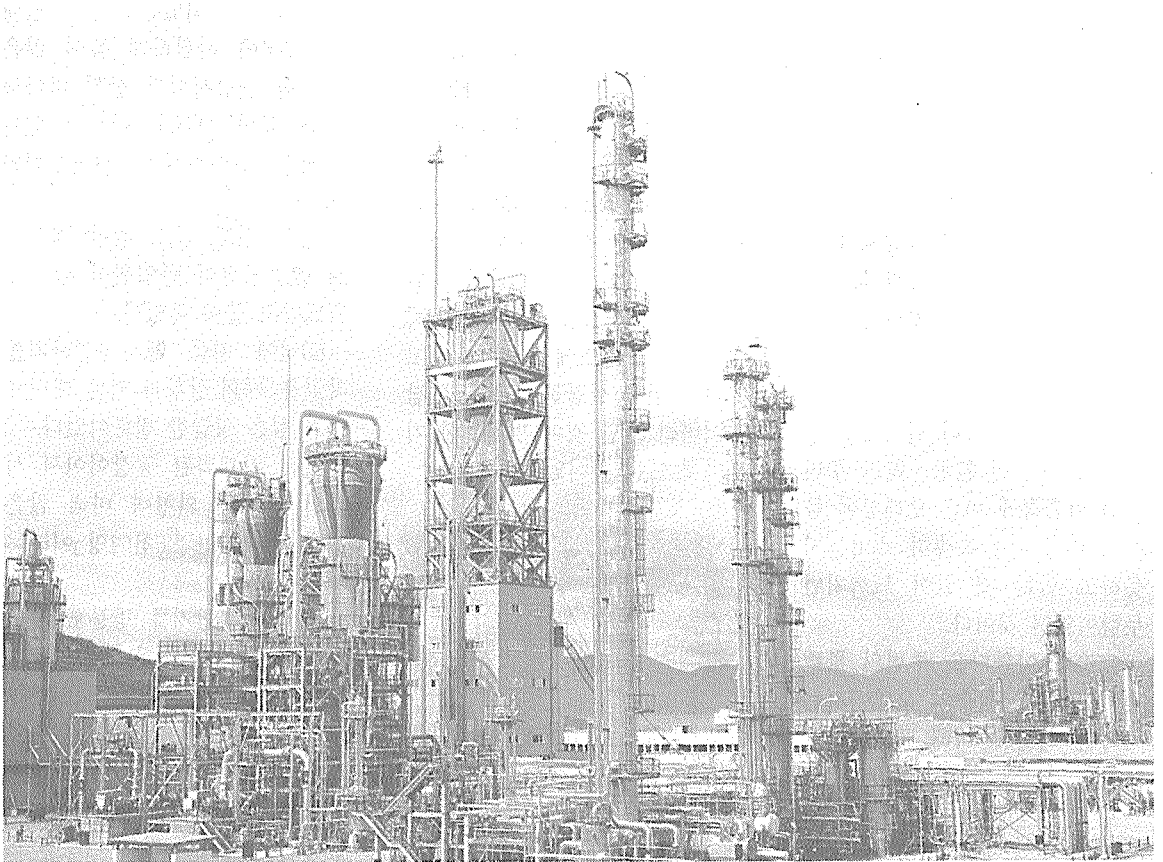
이 생명력 넘치는 麗川공업기지내에서도 중추적인 첨단기간산업이라 할 湖南精油를 찾게 되었다.

湖南精油 麗川정유공장은 1969년 6월, 일산 6만배럴의 규모로,

順天이 유유자적, 팔자걸음을 하는 선비란 다면, 둔덕계 너머의 麗水는 갖차린 오퍼商의 청년사장만 같다. 麗水를 찾을 때마다 느끼는 인상인 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바쁘지 급하기만 하다.

그것이 좋은 의미의 여수의 활력이며 생명력이라도 좋다. 아니면 항구도시의 특성일는지 모른다.

- 서울大 法大 졸업
1957년 한국일보사 현상 공모小説에 「비극은 없다」 當選
- 현 한국문인협회 이사
- 조선일보에 「인생극장」 연재중
- 1987년 한국문학평론가 협회상 受賞



◇ 금년 4월15일 준공식을 가진 호남정유 폴리프로필렌工場의 威容

국내 최초의 민간정유공장으로 준공된 것으로 안다.

기록에 의하면, 착공 2년3개월 만에 내·외자 3천4백만달러, 연 인원 92만여명이 투입되었다던가.

81년 공장의 제4차 확장공사 완공 이래, 하루 38만배럴을 산출해 내는 오늘의 규모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규모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麗川정유 공장의 건설은 오늘의 경제적 부흥을 약속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기간산업의 건설

이라는 대역사의 시발이었다.

만약 麗川정유공장의 건설이 없었다면 오늘의 麗水임해공업 단지의 건설도 없었을 것이며, 오늘과 같은 비약적 경제발전도 없었을 것이라는 가설은 문외한인 나로서도 쉽게 수긍이 갈만한 일이다.

이처럼 麗水지역 공업기지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현장이라 할 麗川정유공장을 찾았다는 것은 나로서도 자못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麗川정유공장을 찾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이다.

지난 80년 봄, 그것이 湖南精油의 발전과정의 어느 시점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수박 곁할기 격으로 둘러본 일이 있는 것이다.

실은 한국일보에 기획연재기사인 「新風士記」의 전라남도편을 집필하게 되어, 湖南精油 뿐만 아니라, 麗川의 중화학공업단지를 두루 살피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일대에 湖南精油를 비롯한 공장群 가운데서 가동중인 공장이 아직은 17개사에 불과했으며, 이 광활한 공단을 관장할 수 있

는, 麗川출장소가 전남도 직할로 생겨난지 얼마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麗川출장소에서는 국력을 상징하는 새공단 건설이라는 높은 기치를 내걸고, 공업기지 건설의 적극 지원과 선도적 이상도시 건설 및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열의를 쏟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표현해서 그러한 당국의 노력이나 열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麗水·麗川 주민들의 마음속에 마른 모래밭에 물이 스며들듯이 축축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던 무렵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주변의 景觀美의 훼손과 해수의 오염이라는 커다란 희생에 비해, 이 거대한 대형공장들의 거의가 완전 기계화공장들이기 때문에, 공단취업 인구가 불과 5천(당시) 밖에 이르지 못해 고용효과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있는 듯 싶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그것은 파도기 현상이려니 믿었고, 날이 가고 해가 바뀌면 그럴수록, 갖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고,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불만도 여과될 수 있으려니 믿었다.

그러한 당시의 나의 생각과 오늘 현실을 이번 麗川정유공장의 방문으로 단편적이거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거니 싶어, 뜻깊게 생각했던 것이다.

麗川공장 영빈관에서 맞은 아침의 창밖은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간밤에는 늦은 밤에 당도했기 때문에, 영빈관이 光陽灣의 아름다운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쾌적한 언덕위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蔚山의 油公을 둘러보고, 釜山을 경유, 麗水에 이른 빠듯한 일정의 여행길이어서 워낙 고단하게 잠을 잤지만, 이처럼 쾌적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채 잠들어버리고 만 것이 멋진듯한 기분마저 드는 것이었다.



◇ 湖油의 각종고급윤활유제품

아침식사를 함께 나누어 준 PP 공장장 孫七南이사와 金鍾允홍보과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서울부터 동행한 石油協會의 金鍾七홍보과장과 함께 麗川공장으로 향한다.

비는 여전 축축이 내리고 있었다.

방향감각을 잃어 어느 방향으로 차가 달리고 있는 것인지 분명치 않았으나, 麗水·순천간 국도에서 광양만쪽으로 빠지는 새로운 길이 아닐까 싶었다.

그야 어찌 되었든간에 이 일대는 곳곳에 광활하게 들어 앉은 거대한 공장시설과 함께 바다와 산과 섬이 그림을 이루고 있는 쾌적한 산업도시의 심장부이리라.

차중, 밀도 끝도 없이 湖南精油 麗水공장의 종업원이 얼마쯤 되느냐고 불쑥 물었다.

80년에 처음 麗川공업단지를 찾았을 때의 상황과 얼른 대비해 보고 싶은 성급한 질문이었다.

완전 기계화된 공장이어서 시설의 규모나 외형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6천여명」이라는 대답이었다.

처음 麗川단지를 방문했을 때의 麗川공단 전체의 가동인구가 5천이었던 것에 비해, 湖南精油의 1개 단위회사의 종업원만으로 그 수를 능가한 것을 보고, 그동안의 발전상을 미루어 짐작하고 일종의 안심과도 같은 기분을 느껴보는 것이었다.

麗川공장에 당도, 응접실의 첫대면의 印柱善전무이사와의 인사를 나눈다.

인심좋은 수더분한 인상에 마음이 놓여서일까, 나는 상식선 이하의 실없는 질문만을 연발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나는 석유업계나 경제계의 문외한이어서, 실속있는 알찬 질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석유 1배럴이 얼마만큼의 분량일까, 막연한 개념으로 밖에는 이해치 못한 형편이니까.(이번 방문여행에서 비로소 확실한 분량을 가능하게는 되었지만.)

하지만 나같은 문외한도 83년

땅을 억지로 사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런 일이 있긴 있었나 보군요? 회사로서 그런 고충이 있는 것이었군요. 역시, 일이란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것은 역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추궁할 처지에 있지도 않았다.

『요즘 도처에서 노사문제로 시끄럽고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회사가 적지 않은데 湖南精油에서는?』

아픈 데를 찌른 것인지, 가려운 곳을 긁어 준 것인지 모르는 채, 또 다시 불쑥 묻고 말았다.

그러나 印전무는 아픈 곳을 찢린 듯한 표정이 아니라, 가려운 곳을 긁어준 듯한 얼굴로 털어놓는 것이었다.

『湖南精油라 해서 타사가 갖고 있는 노사의 갈등 요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문제가 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 가령 노조의 자율적인 조직을 사전에 인정을 했고, 위원장도 노조측에



◇ 厚生福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湖油공장의 유병훈 상무

서 직선제로 선출해서, 노사간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마찰을 일찍부터 예방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서로 융합하는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문제 없이 잘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큰 다행이로군요. 그럼, 요즘 항간에서는 최저임금 같은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湖南精油와 같은 대회사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없겠지요?』

『맞습니다. 정유공장은 일반 근로자도 유휴노동력쪽 보다 기술

직 노동력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단위가 처음부터 다르지요. 고졸 학력의 초임이 30만원선, 전체 사원의 평균월봉이 90만원선에 이르니까요.』

『부럽습니다.』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었다.

사원들의 복지·후생 문제, 연구기관의 실황 따위를 내친 김에 물은 다음, 앞으로 역점을 두고 확장을 해 나갈 석유화학공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한편으로 듣고 한편으로 흘리면서 회견을 마쳤다.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어차피 들어야 머리에 남지도 않고, 이를 정리해서 지면에 옮길 수도 없는 것이니까.

회견이 끝난 다음, 차에 오른 채 공장내를 둘러 본다. 走馬看山이 아니라 走車看山이 된 것이다.

정유공장의 내부시설을 들여다본 일은 없지만, 외관만으로는 그저 커다랗고 넓게 자리잡은 터에 보이느니 탱크와 파이프, 라인 뿐이다. 탱크의 큰 것은 장충체육관의 두배에 이르는 것이 있다던가, 그 방대함에 하품처럼 크게 벌린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하루 6만배럴로 시작된 공장의 규모가 하루 10만배럴로, 다시 제2차 확장공사로 16만배럴, 제3차, 제4차 확장공사로 23만배럴, 현재의 38만배럴 생산으로까지 발전과정을 목도하면서, 이제껏 麗川이 麗水의 옆구리에서 무한한 가능성만 지닌 관광지로서만 알려졌던 것이, 새롭게 뛰는 맥

高卒학력의 初賃이 30만원선, 全体사원의 평균 월봉이 90만원선이라니 더이상 물을 말이 없었다. 일찌기 勞組의 자율적 조직을 인정했고 위원장도 노조원들이 직선제로 선출해서 노사융합이 잘되고 있는 것이다.



◇ 麗川석유화학단지를 설명하는 孫七男이사

의 이른바 석유파동이 어떠한 양상의 것이었는가는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다.

그 이후의 석유산업의 국내의 주변환경이 안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기 보다 급변해 가고 있음도 어렵듯이 이해는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환율 금리 등의 국제금융 질서의 불안정으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밝지 못한 가운데, 國際油價는 조정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가격체계의 형성을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국내에서 두차례에 걸친 유가인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高油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들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국내환경·여건 역시 평온치만은 못하다. 국민들의 개방화와 자율화의 욕구와 기대는 대단하다. 개발년대의 정부기능도 자율경제체제와 균형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 경제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을

들은 일이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정세변화에 따라 석유산업 역시 점진적인 자율·개방화로의 길로 더듬게 될 것이다. 여기에 수반된 국내 최대의 민간기업의 정유공장으로서의 湖南精油의 위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외한인 일개 문사의 주제로 입술을 내밀 처지가 아닌 것으로 안다.

서부른 질문을 실례 무릅쓰고 내뱉은 까닭인 것이다.

실인즉, 麗水에 당도한 날 밤, 麗水 골수의 유지인 어느 문필인

과 싱싱한 뿔감을 앞에 한 술자리에서 얻어들은 湖南精油에 얽힌 이야기를 불쑥 내던지고만 것이다.

다름 아니라, 湖南精油가 공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광대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일부지역의 토지를 마저 매입해 주지 않아,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의 불만이 자못 높다는 소리였다. 湖南精油와 같은 대규모 공장이 들어섰으므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는 주택지로도 농토로도 쓸모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재벌 회사로서 그 남은 토지를 매입해 줄 아량도 있음직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였다.

전후사정을 알 까닭 없는 그럴사 하게 들린 김에, 들은 그대로 솔직히 읊긴 것이다.

印柱善전무는 게면쩍은 미소를 흘리면서 솔직하게 털어 놓는 것이였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하지만 회사로서는 회사로서의 입장이 있는 것이지요. 회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땅을 억지로 사들일 수도 없는 것이구요, 그린벨트에 묶인



湖油는 석유화학공업도 本格化하기 위해 폴리프로필렌工場을 4월에 준공하였으며, 국내 최대규모인 하루 38만배럴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석유제품은 그 품질수준이 海外輸出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유니폴이라는 최신공법을 도입한 化學工場의 電算作業

박아래 힘차게 고동치고 있음을 湖南精油의 단일공장 하나만을 훑어보는 것으로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것이었다.

원래 정유공장의 기술적 수준이나 생산품의 품질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여 그 위상도 뻗은 것이 되었고 기술적으로 더 발돋움할 것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

이에 반해 석유화학부문은 무한한 가능성과 무궁한 소재 개발

의 여지가 있다고 들었다.

湖南精油에서는 PP공장의 준공과 함께 석유화학 부문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이다.

깨끗하고 자상한 인상의 손철남 PP공장장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를 곁드리면서 공정과정이며 생산품의 용도 등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으나, 굳이 여기에 옮길 필요는 없을줄로 안다. 전문인을 통해 보다 상세한 설

명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그저 아직도 이안의 공장단지와 아직도 발전도상에 있는 湖南精油, 그리고 달려도 달려도 끝이 없고, 새롭게 나타나는 대규모 공장군을 바라보면서, 비약하는 우리나라의 참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이었다.

비는 아직 멈추지 않고 있었다.

개인적인 볼 일도 있어 우중의 순천쪽으로 차를 몬다.

兩煙속의 바라보이는 바다는 푸른 바다가 아니라 잿빛바다였다. 그것이 검은 석유 탕인 것일까, 선입견 하나만으로 안스러워지는 마음도 가슴 뿌듯해지는 감정과 함께 가려본다.

그 검은 바다에서 무엇을 건질 것이 있는가, 투망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의 작은 배가 비속의 바다에 한두척 떠 있다.

문득 석유 내음 나는 물고기를 연상하며 안스러워지는 것은 나의 부질없는 노파심 때문이었으리라…….

□ 石油圖書案内 □

石油 및 石油産業의 入門書
石油의 基礎知識